

군산시, ‘시책일몰제’ 적극 추진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서 일몰 1·지속 9·관리 3건 결정
실효성·실익 없는 시책 폐지... 시정 운영 효율성 극대화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책일몰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해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만만 가중되는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나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

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일몰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주 개최된 2025년 제1차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 총 13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일몰 1건, 지속 9건, 관리 3건을 결정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연간 8000개 업체 대상... 임대료 30만원 지급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접수 3,296건 중 심의 완료 2,210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씩 총 6억6,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온라인 누리집(군산시상관활성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동안 8,000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 업체, 유형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관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관활성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민관 협력해 위기아동 지원 강화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 맺어

익산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과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온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협력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아동 발굴·연계·자문을 담당하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건해 가정 방문형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70여 명의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육군부사관학교 후보생, 익산 역사·문화 체험

후보생 521명, 27일까지 시티투어... 미륵사지 등 주요 명소 방문

익산시가 육군부사관학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익산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산면 소재 육군부사관학교 후보생과 간부교육생 등 521명을 대상으로 익산 여행을 진행한다.

육군부사관학교는 군에서 장교와 사병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국에서 모인 후보생들이 교육받고 있다. 이에 시는 익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시티투어는 익산의 역사, 문화, 명소 등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참석자들은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고도한눈에(愛) 세계유산센터’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교도소 세트장이라는 이색적인 장소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상한교도소’, 자연이 어우러진 ‘아가페정원’ 등을 탐방한다.

시 관계자는 “부사관학교 후보생과 간부교육생의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매력 도시 익산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무원 폭력 엄정 대응”... 공무원 존중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군산 공노조, 대시민 호소·엄정한 수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군산시가 민원행정 과정에서 폭력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18일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폭력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A씨의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성명서에서 군산시는 이번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최근 군산시가 민원행정 과정에서 폭력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들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민원인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시청으로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협박 후 실제 흉기를 가지고 찾아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폭력 사건이 발생해 공식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민이 만드는 '삼삼오오 프로젝트' 참가자 100팀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풀뿌리도시 익산' 만들기에 나선다.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희망연대와 함께 '삼삼오오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 100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재미있는 익산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을 주제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사 만들기, 축제, 공연 등을 통해 시민 100팀을 모집한다. 참가팀에게는 이야기 모임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 10만 원이 지원되며,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모임을 진행한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20팀을 선정해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팀은 6월부터 9월까지 익산 곳곳에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개최하며, 최종 평가를 통해 금상(100만 원), 은상(70만 원), 동상(50만 원) 등 3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및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5) 또는 희망연대(063-841-7942)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숲 체험 본격 운영

익산시가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봄을 맞아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전문 강사 지원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토요 숲 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숲 탐험 △벚꽃놀이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childcare.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60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재단

